책이름: 인생을 어떻게 살면 좋겠냐고 묻는 아들에게

작가: 한창욱

이 책을 읽게된 계기:

이 책은 처음으로 내 돈으로 직접 서점에 가서 구매한 책이다. 인생에서 어떠한 고민이 생길 모범 답안까지는 아니더라도 나름의 답변을 줄 수 있는 책이라는 생각이 들었다.

인상 깊었던 구절/부분:

이 책은 굉장히 단순한 구조로 이루어져있다. 한 주제당 한 페이지 혹은 많아봤자 2페이지로 설명이 되어있다. 굉장히 짧지만 간결하게 정리되어있다.

첫번째로 인상 깊었던 부분은 146페이지 “마음속으로 먼저 선택한 뒤 의견을 물어라”부분이다. 나는 평소에 굉장히 우유부단한 성격이다. 나도 자각하고 있고 가족들도 내가 우유부단하고 결단력이 없다고 말해주었다. 평소에 나에게 a와 b중에 뭐가 더 좋아? 라고 물어보면 나는 보통 “아무거나”라고 답해왔다. 주관이 없는 사람은 매력도 없을뿐더러 선택장애자처럼 비칠 수 있다고 한다. 나중을 생각했을 때에도 나 같은 사람보다는 자기 주장이 있고 똘똘한 사람을 더 만나고 싶을 것 같다. 마음 속으로 내가 하고 싶은 것, 먹고 싶은 것을 언제나 생각해두고 결단력 있는 성격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.

두번째로 인상 깊었던 부분은 “단순하게 살아라”부분이다. 그 예시로 스티브 잡스가 있는데, 보다 단순한 디자인과 본질을 중요시 했던 사람이었다.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아이폰이 이렇게나 사랑받고 팬층이 두터울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. 인생 또한 비슷하다고 한다. 쓸데없는 소모적인 시간을 아껴서 집중해야 할 곳에 투자하면, 그 누구보다 성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한다. 너무나 복잡하고 머리아픈 일이 있을 때 이 조언을 잘 따라보기로했다. 내가 지금 왜 고민하는 것인지,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는지 등 본질이 집중하면 내 감정관리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.

마지막으로, 내 돈으로 처음 산 책인만큼 애정이 많이 가는 책이다. 내가 머리 아픈 고민이 생겼을 때마다 계속 무한으로 꺼내 읽을 것 같다. 어떤 일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책을 추천하고 싶다. 명쾌하진 않지만 어떻게 하면 지금의 상황에서 순조롭게 빠져나올 수 있는지 도움을 줄 수 있는 책이다.